

헌신의 달

믿음성장과 신앙생활 성숙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당신의 희망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환영에 따라 보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새기가 사방에서 와서... 불에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믿음은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새
 성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March 7,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지역과 행사 안내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이사야 40:1-11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헌신과 나눔	봉 헌 / 구은강 집사, 최내권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찬송 620장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여호수아 23:1-8, 24:14-18

여호수아의 고별사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3월은 “헌신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 성장과 신앙생활 성숙주간**입니다.
3. 사순절입니다. “교회를 꿈꾼다” 특강(월-목, 오후 9:00)이 진행됩니다.
4. **예배안내** 종려주일(3/28)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준비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5. 2 세 **신앙교육** E-Learning 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6.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7.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8. **치유, 회복, 나눔**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3월의 사역 - 믿음 성장과 성숙 주간(7-13) 사순절(4월 3일까지)

♥ **섬김** 축하 ♥ 김성배(2) 김윤경(11) 홍은영(19) 장경미(22)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2/28	3/7	3/14	3/21
	고순제전도사	최내권집사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2/28	3/7	3/14	3/21
	최내권집사/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최선윤집사	
주일안내위원	2월	3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 / 호세아 14:4-9

호세아서에 나타난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찌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세아를 통한 모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때로는 회초리로 심판하신다. 따라서, 경고를 듣고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백합화와 백향목,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로 비유된 축복을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자. 인생을 바쳐 이스라엘에게 전한 호세아의 진리의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는 혹시 시험에 빠졌다가도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당신은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 / 이사야 40:1-11

징계와 심판 후,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

첫째, 용서와 위로의 축복

둘째, 다듬어 주심의 축복

셋째, 다스리심의 축복

용서와 위로, 다듬어 주심과 다스리심을 축복을 받으며 성장하는 성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 / 이사야 40:1-11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난 후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은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용서와 위로의 축복이다. 1절에 “위로하라.”는 말씀이 반복하여 나온다. 이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뜻이다. 노역의 때가 끝남으로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위로이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습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유다가 멸망하기 일백 년 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150년 전이었다. 즉, 유다의 멸망과 귀향 모두 미래의 일임에도 하나님은 벌을 받고 돌아올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느껴야 한다. 징계 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는 다듬어 주시는 복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졌고, 이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권고였다. 즉, 다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골짜기가 돋우어진다.”(4 절)는 것은 골짜기를 메운다는 뜻으로 마음속에 부족한 부분을 채움을 말한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인내, 순종이 부족한 사람은 순종을 채워야 한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넘치는 부분, 특히 교만과 고집을 깎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 평탄하지 못한 우리 마음을 닦아서 평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요약하면 성화이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은 위로로 이어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가 다듬어진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셋째는 다스리심의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신다. 목자에 비유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눈에 밝히 보이게 되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 기도, 감동을 주시기도 하여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주인인 인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지 않는가.

물질, 자녀, 또는 건강의 복을 넘어서, 용서와 위로의 복, 다듬어짐의 복, 다스리심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다. 이런 복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 한다.

말씀적응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성회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2021년 2월 26일 ~ 4월 11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기간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합시다.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는 진리, 그러나 생소하고 낯설어진 주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은 때로 교인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잘 교제하고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거듭남, 회심, 중생, 이런 말들이 한없이 낯설다.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라는 말은 너무 피상적으로 들린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많이 들었지만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거듭남과 십자가의 진리를 건너뛰고 번영, 성공, 체험 등 진리의 변두리에 있는 것을 진짜 기독교로 여기진 않는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이것보다 긴급하게 전해져야 할 말씀은 없다. 신비로운 십자가의 구속, 그 은혜에 압도당해 새로워져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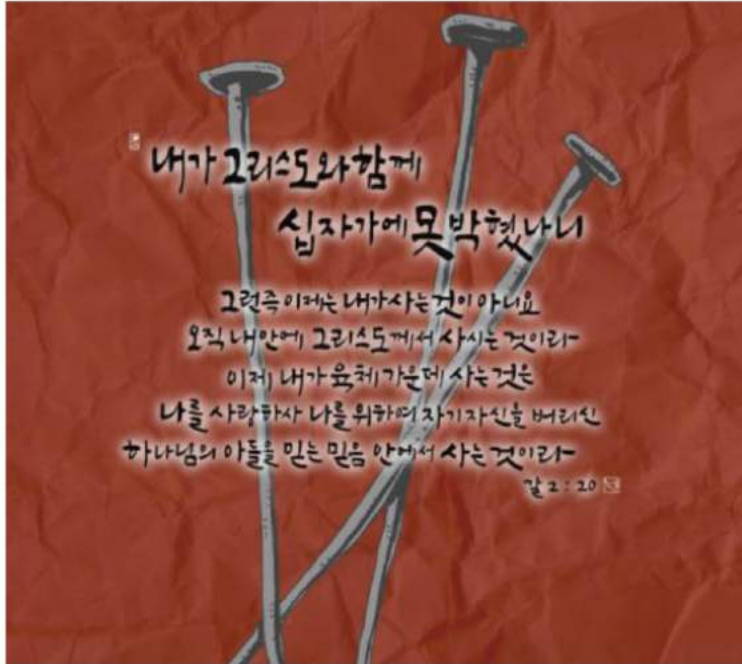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온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삶의 참된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중생의 문제는 성경의 핵심 진리이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은혜의 내용은 아무 의미도 쓸모도 없게 된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과도 무관한 자가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드나들고 있지만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알고, 따라서 신앙생활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기거나 육체적인 고통 수준에서만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은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면 경솔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도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만족해하는 피상적이고 거짓된 신앙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라.

먼저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해 깊은 고뇌 가운데 계셨던 셋세마네에서의 주님을 정확히 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 갈 2:21 -

이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에 얽매어 책임감과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로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다만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삶 가운데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책임감과 의무에 여눌린 율법의 삶이 아닌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사명'으로 인도되는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파란우레를 사랑하,
 내가 너를 저파란우레니 파란우레는 내가 가운데 있음 큰음 파란우레는 것이로
 누군데 말하고 내가 피계우레지 무한 것은 내가 큰음 파란우레는 것이로
 내가 너를 저파란우레니 파란우레는 내가 가운데 있음 큰음 파란우레이니라.”

로마서 2:1

교회를 섬기는 분들

-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 장영현 전도사
-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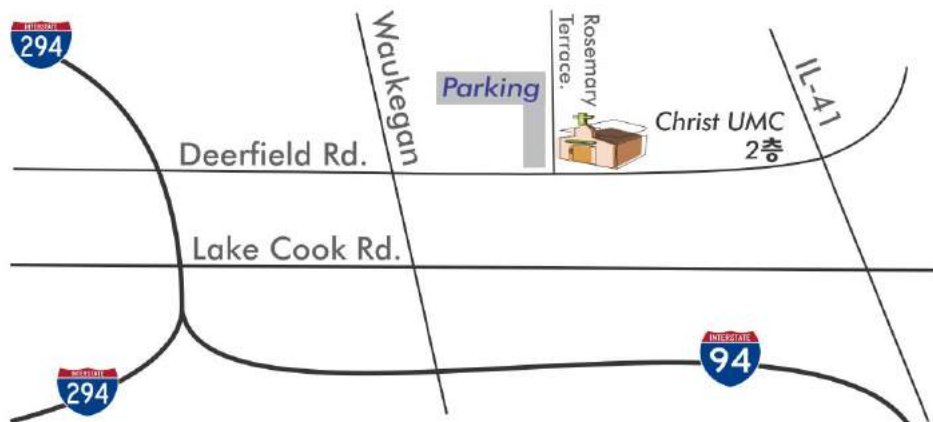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